상위 AI 모델, 성능/사용량 기반으로 수익화 시작

Hana China Weekly | 2026.4.10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Zhipu AI(2513.HK): GLM 모델 가격 10% 인상

- 4/8 Zhipu AI는 차세대 오픈소스 플래그십 모델 GLM-5.1을 공식 출시하고, OpenRouter 기준 GLM 모델 가격을 추가로 10% 인상. GLM-5.1은 장시간 에이전트형 작업 수행 능력과 코딩 성능 개선을 강조했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의 상용화·수익화 전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이 기존 '저가·점유율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모델 성능 고도화 기반의 가격 정상화 및 수익화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특히 핵심 코딩 시나리오 가격이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 빠르게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 서비스 경쟁 축이 단순 트래픽·사용량 확대에서 성능 기반 ASP 상승 및 유닛 이코노믹스(UE)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

샤오펑(9868.HK): 저가 전기차 시장 철수 공식화

- 4/6 샤오펑은 10만 위안 이하 저가 EV 시장에서 철수 방침을 공식화하며 가격 경쟁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술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을 선언. 허샤오펑 CEO는 저가 차량 생산은 의미 없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이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 최근 출시한 신차 라인업은 가격 인하 대신 최대 1,500 TOPS 수준의 자체 AI 칩 및 자율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가격대는 11.98만~15.18만 위안으로 설정. 동시에 샤오펑은 사명을 샤오펑자동차에서 샤오펑그룹으로 변경하며 단순 OEM에서 벗어나 AI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전기차를 기반으로 'Physical AI' 영역 확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CXMT(비상장):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로 향후 메모리 초과 공급 초래 가능성 제기

- 모건스탠리는 CXMT가 약 295억 위안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상하이 STAR 마켓 IPO를 추진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증설이 글로벌 메모리 업사이클 후반부와 맞물릴 경우 공급 측면에서 수요 대비 균형 상태를 넘어 초과 공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CXMT는 DDR4 등 범용 DRAM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약 5%(YoY +2%p), 가동률은 94.6%까지 상승한 상황.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급락보다는 상승률 둔화가 핵심 시나리오로 제시되며, 이는 고객사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 약화와 ASP 상승 탄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

플랫폼/테크

Zhipu AI(2513.HK): GLM 모델 가격 10% 인상

- 4/8 Zhipu AI는 차세대 오픈소스 플래그십 모델 GLM-5.1을 공식 출시하고, OpenRouter 기준 GLM 모델 가격을 추가로 10% 인상. GLM-5.1은 장시간 에이전트형 작업 수행 능력과 코딩 성능 개선을 강조했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의 상용화·수익화 전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이 기존 '저가·점유율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모델 성능 고도화 기반의 가격 정상화 및 수익화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특히 핵심 코딩 시나리오 가격이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 빠르게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 서비스 경쟁 축이 단순 트래픽·사용량 확대에서 성능 기반 ASP 상승 및 유닛 이코노믹스(UE)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

알리바바(9988.HK): Qwen 3.6 Plus, 사용량 글로벌 상위권

- 알리바바는 Qwen 3.6 Plus가 OpenRouter 주간 집계(3/30~4/5)에서 4.6조 Tokens로 1위를 기록했고, Qwen 3.6 Plus Preview도 3위에 오르며 글로벌 사용량 상위권에 위치해있음을 재확인. 이는 최근 조정받았던 알리바바 AI 경쟁력 우려를 완화시키는 재료로, 실제 4/8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6.8% 상승 마감.
- 알리바바는 China Telecom과 협력해 광둥 샤오관에 자체 설계 AI 칩 'Zhenwu' 약 1만개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가동하며 AI 인프라 내재화 및 반도체 자립 전략을 본격화. 해당 시설은 수천억 파라미터급 초거대 모델의 학습·추론을 지원하며, 향후 칩 탑재 규모를 10만개 수준까지 확대해 의료·첨단소재 등 산업별 AI 적용을 가속화할 계획.

전자상거래: 중국 정부, AI+전자상거래 전략 정책 발표

- 4/6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AI+전자상거래' 전략을 공식화. 정책은 대형 AI 모델의 산업 적용 확대를 핵심으로, 추천·검색·고객응대 등 전 영역에서 AI 활용도를 높여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물류·마케팅·운영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유통 효율 제고를 추진하는 데 집중. 특히, 플랫폼 기업의 핵심 기술 자립(LLM·알고리즘) 강화와 함께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알리바바·징둥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AI 투자 확대 및 상업화 속도 가속이 기대됨.

AI: 중국 AI 대형 모델 5주 연속 상승세 지속

- OpenRouter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3월 30일~4월 5일) 중국 AI 대형 모델의 주간 토큰 사용량은 12.96조로 전주 대비 31.5% 증가, 5주 연속 상승세 지속. 이는 기업·개인 단위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AI 에이전트·코딩·콘텐츠 생성 등 응용 영역에서 수요가 동반 확대되는 흐름.

텐센트(0700.HK): 기업용 AI Agent 공식 출시

- 4/2 텐센트는 기업용 AI Agent 플랫폼 'ClawPro'를 공식 출시하고 공개 베타 테스트를 개시. 해당 플랫폼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약 10분 내 직원별 AI 어시스턴트 구축이 가능하며, 생산성 자동화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 SaaS와 AI Agent를 결합한 형태로 기업용 AI monetization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및 AI 사업 확장 측면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징동(9618.HK): 100개 브랜드와 100억 보조금 판촉 출범

- 징동은 Haier Smart Home(600690.SH, 6690.HK), Midea Group(000333.SZ, 0300.HK) 등 100개 이상 브랜드와 함께 전국 단위 인테리어 '100억 보조금' 판촉을 공식 출범. 향후 1년간 총 100억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가전·가구 소비를 촉진할 계획.

바이트댄스(비상장): 기업 가치 6,00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

- 4/8 바이트댄스는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약 9억 달러 규모 지분 거래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수 투자자 수요 유입으로 기존 5,500억 달러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향된 것으로 파악. 이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콘텐츠·광고 기반 사업의 성장성과 현금창출력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AI: 중국 AI 대형 모델 5주 연속 상승세 지속

- OpenRouter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3월 30일~4월 5일) 중국 AI 대형 모델의 주간 토큰 사용량은 12.96조로 전주 대비 31.5% 증가, 5주 연속 상승세 지속. 이는 기업·개인 단위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AI 에이전트·코딩·콘텐츠 생성 등 응용 영역에서 수요가 동반 확대되는 흐름.

반도체

반도체: 미국 의회, 동맹국에 중국 반도체 장비 접근 제한 법안 발의

- 4/8 미국 의회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접근을 추가 제한하는 'MATCH Act'를 발의.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150일 내 대중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하며 DUV 노광 및 식각 장비 등 핵심 장비 전반을 포함할 가능성. 법안 통과 시 ASML, Tokyo Electron 등 글로벌 장비사의 대중 수출 제한 강화와 함께 공급망 교란 우려 확대.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 차질 리스크가 부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국산화 투자 가속 및 공급망 내재화에서 기술 블록화 심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 확대로 존재감 강화

- 4/7 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증설 기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존재감을 강화 중.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글로벌 대비 15% 이상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범용 서버 및 소비자 시장에서 침투율 확대 중이며, 동시에 생산능력 확대로 물량 측면 경쟁력을 확보. 특히 YMTC는 2026년 하반기 우한 신규 라인에서 첨단 NAND 양산 예정으로, 증설 완료 시 글로벌 3위 NAND 업체로 도약 가능성 제기. 단순 저가 전략이 아닌 '가격 격차 축소 + 공급량 확대' 조합을 통해 점유율 상승 국면 진입, AI 수요 확대 국면에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 내 중국 업체 영향력 확대 전망.

CXMT(비상장):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로 향후 메모리 초과 공급 초래 가능성 제기

- 모건스탠리는 CXMT가 약 295억 위안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상하이 STAR 마켓 IPO를 추진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증설이 글로벌 메모리 업사이클 후반부와 맞물릴 경우 공급 측면에서 수요 대비 균형 상태를 넘어 초과 공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CXMT는 DDR4 등 범용 DRAM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약 5%(YoY +2%p), 가동률은 94.6%까지 상승한 상황.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급락보다는 상승률 둔화가 핵심 시나리오로 제시되며, 이는 고객사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 약화와 ASP 상승 탄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

전기차/이차전지

니오(9866.HK): 온보 SUV L90 인도량 5만대 돌파

- 4/3 니오의 서브 브랜드 온보의 대형 SUV L90이 누적 인도량 5만대를 돌파하며 판매 모멘텀 지속. 4월 21일 출시 예정인 2026년형 L90에는 LiDAR 탑재 모델이 추가되며 기존 비전 기반 모델과 병행 판매를 통해 선택지 확대 예정. 최근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약 1만위안 증가한 가운데, AD 성능 개선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판매 회복 흐름을 이어가려는 전략.

GAC Aion(2238.HK): 배터리 스왑 기술 적용된 신차 출시

- 4/8 GAC Aion은 CATL 배터리 스왑 기술을 적용한 중형 전기 세단 'RT Super'를 출시. 해당 모델은 배터리 임대 방식 기준 8.88만 위안부터 시작하는 가격 구조를 적용해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며,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소비자는 차량 가격 부담을 줄이고 배터리는 구독형으로 이용하는 구조. 이는 최근 중국 EV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환경에서 OEM들이 채택하는 '가격 인하가 아닌 금융 구조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 전략으로 해석됨.

SAIC Motor(600104.SH): 반고체 배터리 양산 본격화

- 반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 본격화, 2026년부터 브랜드별 순차 적용. 반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연간 판매 500만대 및 매출 7,000억 위안 이상 목표 제시. 배터리 기술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상품 경쟁력 및 ASP 방어 의도.

BYD(1211.HK): Denza N9 플래시 충전 버전 사전 판매 시작

- Denza N9 '플래시 충전' 버전 사전 판매 개시. 초고속 충전과 PHEV 결합으로 대형 SUV 상품성을 강화. 4/7 사전 판매 가격은 45만~50만 위안으로 기존 대비 상위 포지셔닝이며, 2세대 Blade Battery 및 플래시 충전 기술 적용으로 완충 약 9분, 영하 30도의 환경에서도 충전 시간 증가폭 약 3분 수준으로 억제 가능.

샤오펑(9868.HK): 저가 전기차 시장 철수 공식화

- 4/6 샤오펑은 10만 위안 이하 저가 EV 시장에서 철수 방침을 공식화하며 가격 경쟁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술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을 선언. 허샤오펑 CEO는 저가 차량 생산은 의미 없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이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 최근 출시한 신차 라인업은 가격 인하 대신 최대 1,500 TOPS 수준의 자체 AI 칩 및 자율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가격대는 11.98만~15.18만 위안으로 설정. 동시에 샤오펑은 사명을 샤오펑자동차에서 샤오펑그룹으로 변경하며 단순 OEM에서 벗어나 AI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전기차를 기반으로 'Physical AI' 영역 확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지리자동차(0175.HK):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통합 조직 출범

- 지리자동차는 유럽 R&D 조직을 통합한 'Geely Technology Europe'을 출범시키며 글로벌 차량 개발 체계를 일원화, 중국-해외 간 신차 출시 간격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 이를 통해 Zeekr, Lynk & Co 등 주요 브랜드의 글로벌 동시 출시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유럽 내 개발 프로젝트 규모를 2배 확대해 해외 판매 확대를 가속화할 방침.

CATL(3750.HK): 900척 선박에 배터리 탑재 완료

- CATL은 선박용 배터리 탑재를 확대, 누적 약 900척의 선박에 배터리 탑재를 완료하며 해양 전동화 시장 진입을 가속. 주로 중국 연안 및 항만 중심의 소형 선박에 배터리 공급이 이뤄졌으며, 2026년 선박 사업 인력을 500명 수준(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계획. 초기 레퍼런스 축적과 인력 확충을 병행하며 해양 전동화 시장 내 점유율 선점 전략.

로봇/자율주행

유비테크(9880.HK): 체화 지능 인재 채용 확보에 총력

- 4/3 유비테크는 글로벌 대상 'Embodied AI(체화지능)' 수석 과학자 채용을 추진하며 최대 1,500만위안 수준의 임금을 제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AI 인재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의도. 중국 내 AI 인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로보틱스 영역으로 'AI 인재 쟁탈전'이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 실제 중국 내 AI 관련 채용 비중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며 산업 전반에서 핵심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비테크의 고액 보상은 기존 중국 AI 업계 대비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Pony AI(PONY.US): 유럽 최초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 4/8 Pony AI는 크로아티아에서 유럽 최초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 현지 모빌리티 플랫폼 Verne 및 Uber와 협력해 서비스 개시했으며, 공항 포함 주요 핵심 구역을 커버. 초기 차량은 BAIC Arcfox Alpha T5 기반에 7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 일일 7시~21시 상업 운행을 진행. 특히 7세대 시스템 기준 중국 1선 도시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이후 해외 확장에 나섰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수익성 기반 확장 국면 진입했음을 시사.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3.9	14.4	19.4	10.7	10.0	8.8	12.7	29.3	(0.6)	2026-05-13
알리바바(BABA.US)	4.6	27.6	8.3	3.1	10.9	(29.3)	11.2	(52.8)	(1.8)	2026-05-15
징동(JD.US)	(0.4)	9.5	11.0	6.3	6.2	19.8	46.3	34.9	0.0	2026-05-13
트립닷컴(9961.HK)	2.9	12.7	9.8	13.6	13.0	(46.4)	15.6	(38.8)	0.0	2026-05-19
텐센트뮤직(TME.US)	1.3	9.7	11.6	9.6	9.4	(14.8)	10.5	19.5	(0.5)	2026-05-12
콰이쇼우(1024.HK)	0.3	10.2	17.1	4.3	6.8	(22.5)	17.9	(6.9)	(5.3)	2026-05-1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1.9)	9.2	16.3	4.9	5.0	10.4	10.0	7.8	(1.0)	2026-04-29
샤오미(1810.HK)	1.6	20.3	12.4	11.3	16.8	(18.5)	32.5	6.9	(1.0)	2026-05-15
레노버(0992.HK)	2.0	9.8	26.6	16.1	8.2	21.6	4.9	11.6	0.0	2026-05-22
팝마트(9992.HK)	7.7	11.3	51.4	24.6	18.2	20.5	18.9	22.6	(1.1)	2026-08-19
미니소(MNSO.US)	1.6	11.1	24.6	18.5	15.5	128.7	18.4	165.8	(3.4)	2026-05-22
BYD(1211.HK)	(2.0)	18.9	16.2	17.0	13.2	32.1	24.7	42.0	(0.7)	2026-04-27
샤오펑(9868.HK)	(1.2)	286.5	0.2	31.3	25.2	적지	흑자	흑자	0.1	2026-05-21
CATL(300750.CH)	0.9	20.6	24.1	32.4	20.8	25.1	43.2	32.8	0.2	2026-04-15
양광전력(300274.CH)	0.4	16.3	28.0	24.8	18.7	28.8	18.7	27.9	(2.7)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10.9	48.9	19.3	31.6	27.3	24.2	35.2	24.7	(0.9)	2026-04-28
SMIC(0981.HK)	9.2	59.5	4.4	18.6	16.4	41.4	33.1	41.0	0.0	2026-05-08
해광정보(688041.CH)	6.2	113.1	18.3	53.7	37.7	93.3	42.4	87.9	0.2	2026-08-05
통푸마이크로(002156.CH)	10.7	53.6	8.1	15.2	15.6	81.5	27.6	99.3	0.0	2026-04-16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5.4	17.8	30.5	68.6	27.9	77.4	25.1	78.4	0.0	2026-04-28
중지쉬창(300308.CH)	14.3	35.3	53.8	105.5	33.8	123.5	34.3	112.8	3.8	2026-04-23
포니AI(PONY.US)	1.6	-	(20.7)	47.0	118.5	적지	적지	적지	2.0	2026-05-20
위라이드(WRD.US)	(2.8)	-	(24.1)	53.6	87.1	적지	적지	적지	13.2	2026-05-21
허사이테크(HSAI.US)	5.5	36.5	7.4	45.5	38.5	28.8	63.4	30.1	(0.7)	2026-05-26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5.4	-	(26.0)	60.5	58.5	적지	적지	적지	(0.1)	2026-08-27
킹소프트(688111.CH)	1.6	48.7	16.0	18.9	19.3	23.9	20.3	23.4	(0.5)	2026-04-23
중신증권(6030.HK)	2.4	9.9	11.2	(17.9)	8.9	19.9	10.4	21.0	0.0	2026-04-29
평균	3.4	38.0	13.9	27.0	25.5	29.5	25.1	35.7	(0.0)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4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